

국가예산 확보 만반의 준비

임실군, 신규사업 50건 추진 집중·생활밀착형 SOC 예산확보 활동 본격화

임실군이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군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공모사업 선정과 꺾직한 국가예산 확보에 이어 올해도 더 많은 국가예산을 따내기 위한 치밀한 준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심 민 군수의 주재로 2020년 국가예산확보와 2019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대응방안, 쟁점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최초 본예산 4천억원대에 진입한 만큼 이에 걸맞는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옥정호 수변순환도로 개설(800억원)과 운중교차로 개선사업(514억원) 등 주요 핵심 현안이 국비 대응단계에서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타당성 논리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168억원)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70억원) 등에 대한 논리강화와 세부 구상안 마련에 더욱 집중하여 지역발전의 기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80억원) ▲필봉풍물마을 민속마을 조성



임실군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대응 보고회를 열었다.

(75억원)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300억원) ▲이운천 하천재해예방사업(207억원) ▲옥정호 태극물놀이 습지 보전사업(110억원) 등 꺾직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사전절차와 현장평가 등 단계별 대응에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2~3년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시로 부처를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고생하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가 온다는 자세로 전 공무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2월까지 중점관리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예산확보 전략 강화 교육, 집중 활동 기간 운영, 대응 상황 점검, 정치권 공조체계 구축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강화해 군 주요 현안사업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을 시정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남원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환주 시장이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을 주제로 지난달 21일 주천면을 시작으로 실시한 2019년 시정설명회가 28일 운봉읍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시정설명회는 편안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이

근민(平易近民)의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자리로, 시민들과 눈높이 소통으로 올해 시정 목표인 공감·친절 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이 시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변화하는 행정욕구를 파악하는 시정설명회였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



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의원들, 토양 오염문제 해결 강력 요구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 및 의원은 지난 26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해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리철회를 강력 요구하면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 의원 전원은 집회에서 가두행진 참석 등 군민들과 함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철회를 촉구했으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법적용의 지원을 떠나 광주광역시의 적극적 문제 해결자 역할을 주문했다.



신대용 의장은 연설에서 “임실군과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시에

도 아랑곳 않고 법적 하자가 없다며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처리한 광주광역시의 처사는 아전인수격의 행정처리이며, 광주광역시의 안하무인격 남비 발언은 지역 간의 갈등 유발과 함께 군민들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준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1,500여명의 임실군민 및 전북도민이 광주광역시청을 찾아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리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황속주 순창군수가 3.1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에 참여했다.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 되새겨

황속주 순창군수,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 참여

황속주 순창군수가 3.1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 참여로 3.1 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 챌린지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이해를 높이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이광중 대한광복회 성북구지회장의 촉발로 현재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챌린지는 3.1 독립선언서의 38개 문장을 한 문장씩 필사해 릴레이 형태로 다음 주자를 지목해 이어나가고 있다.

3.1절이 단순 공휴일로 퇴색되어 가는 현 세대에 SNS를 통한 챌린지 확산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10번째 문장인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를 한 글자마다 마음을 담아 필사했다.

황속주 순창군수는 “3.1 운동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 꼭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건이다”면서 “독립선언서 필사로 다시 한 번 역사적 의미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다음 주자로 황명성 논산시장과 김대근 사상구청장, 유기상 고창군수를 지목했다.

한편 순창군은 내달 1일에 향토회관에서 3.1 운동 제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기념행사에는 기관단체장, 군민, 학생, 군인 등 각계각층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 애국 지사의 정신을 계승해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남원시는 최근 시민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모니터링 솔루션을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사고에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솔루션 구축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성·기록하여 1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다양한 분석으로 이상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 시민의 개인정보 유·노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양일규 홍보전산과장은 “개인정보 모니터링 솔루션 구축을 계기로 보안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 남원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올해 경영위기의 농가부채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및 각종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임대기간종료 후에는 임대농에게 환매권을 우선 보장하고 있어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여야 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의 60% 이하의 농지만 매입한다.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자이고, 제외대상은 76세 이상 농업 외 소득이 50%이상인 농업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a.or.kr)에 접속하면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